

광주시, 고령노약자 라이프케어로봇 인프라 구축한다

실증·분석 장비 등 25종 구축 및 제품 사업화·고급화 지원 인공지능 연계 라이프케어로봇·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기대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0년 산업기술기반구축혁신사업 신규과제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조성사업은 실증·분석 장비 등 25종을 구축해 라이프케어로봇 등의 안전성, 유효성, 성능 등을 실증지원하고, 제품의 사업화 및 고

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합·관리된 실증데이터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해 분석기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데 활용한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원(국비 80, 지방비 21, 민자 35)을 투자하며,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사업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지역의 의료·헬스케어

로봇 분야를 특화육성하기 위해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노력해왔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에는 헬스케어로봇의 안전성시험 등 성능평가장비 48종과 임상 및 실증지원을 위한 유사환경 실증테스트베드가 구축돼 있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신뢰성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제품인증 및 인허가 지원 등 상용화에 필요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조성사업’

을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인프라로 최대한 활용해 시가 중점 추진중인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 관련기업이 제품을 개발한 후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인증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 지역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고령의 노약자들이 주요 대상인 라이프케어로봇·의료기기 제품의

다양화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전남대병원, 각종 요양 및 재활병원,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기업이 개발한 라이프케어로봇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조폐공사 ‘시각장애인용 지역상품권’ 출시



QR코드 스캔시 정보 음성 안내 24일 군산 시작 전지역 확대

한국조폐공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지류(종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지역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뒷면 우측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지역상품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상품권명, 액면금액, 발행처, 유효기간)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안내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을 통해 이뤄진다.

안드로이드폰은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아이폰은 보이스 오버(VoiceOver)라는 문자음성 안내기능을 갖추고 있다.

QR코드가 적용된 지역상품권은 24일 군산시에 공급되는 상품권을 시작으로 연내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모든 지역상품권에 적용된다.

조폐공사는 제조비용 상승없이 시각장애인이 지역상품권 주요 정보를 손쉽게 인식하도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조폐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시각장애인도 지역상품권 정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이근우 지자체상품권사업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상품권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전남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립

전남도는 15일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사업 기간 3년간 필요한 재원 5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지침 수립과 수행기관의 사업운영을 관리하게 된다.

전남도는 15일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통합지원 사업사업 기간 3년간 필요한 재원 5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지침 수립과 수행기관의 사업운영을 관리하게 된다.

광주 남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접수

광주 남구는 13일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이다.

교부 품목은 전동침대를 비롯해 보

행차, 기립 훈련기 등 고가 장비부터 음성 시계와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 시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헤드폰 청취 증폭기, 문자 판독기, 목욕 의자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기 등 총 31가지 종류이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이슬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